

2019 새 설계

이 승 옥 강진군수

“기업유치 → 일자리 창출 → 인구유입 선순환 구축 총력”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을 ‘더불어 행복한 강진공동체’ 건설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로 삼아 군민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7기 각종 군정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양한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비롯해 강진 산단을 중심으로 기업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진산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전남에서 가장 높은 5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분양률 60%를 넘어 이제 100%분양을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군수는 “강진산단 내 기업 가동에 필요한 인력은 군민 위주로 채용하도록 협의하고 관외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를 위해 주거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강진산단의 활성화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

시설원에·화훼 등 스마트 농업 확대

영랑생가 인근 ‘강진의 몽마르트’ 조성
군내버스 1000원 단일 요금제 시행

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수·축협에서는 산지가공·유통업체를 육성해 이를 직거래나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창업형 일자리와 신규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피력했다.

그는 또 유기농·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딸기, 장미, 수국 등 국내·외 비교우위 작목인 시설원예, 화훼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도입을 확대하는 등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을 강조했다.

강진 고유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지 육성으로 군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군수는 “영랑생가에서 금서당을 거쳐 사의재에 이르는 ‘강진의 몽마르트 언덕’ 조성하고 함께 가

우도 청타워까지 모노레일을 신설한다”며 “11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생태클러스터로 확대하고 인근에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관광트렌드에 맞춰 기존의 관광자원의 개발·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진읍에 들어설 관광호텔과 다산배 아체 골프장 내에 신축되고 있는 콘도형 리조트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권역별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총 420여억원의 대규모 공모사업비를 확보, 강진의 균형발전을 이끌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강진읍의 100년 대계를 담보할 기틀 마련에도 총력 대응한다.

이 군수는 “강진읍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문안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사업,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과 함께 중앙로 등 413개의 중심상가에 대한 상권 활성화사업과 강진을 전체를 아우르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저수지 아래에서 남포마을까지 5.3km에

2019년도 주요 사업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도입 확대 농가 경쟁력 강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 실현

이르는 224억원의 강진정 정비사업과 교촌리와 서산리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과 신규마을 조성을 통해 강진을 중심지와 농촌마을 간 개발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 실현으로 군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도 높아갈 생각이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늘려 100세 시대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돕는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비롯 군내버스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으로 인하고, CCTV 확대 설치로 방범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 강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순천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설립 잔결음

허석 시장 중 북경 방문

2개 기관과 운영·교류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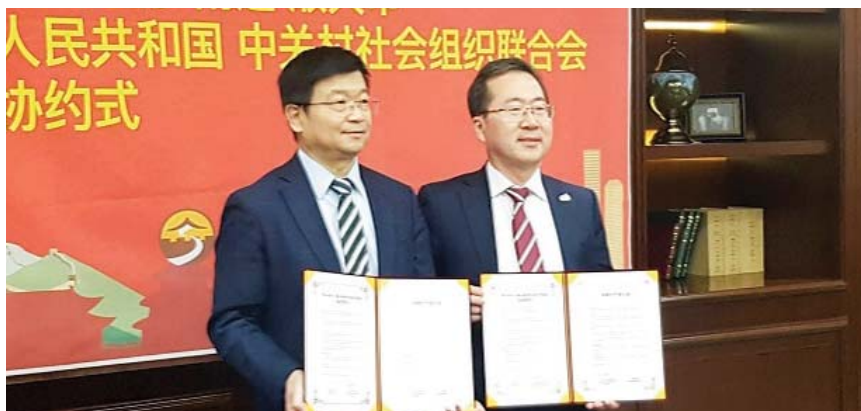
순천시가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시는 허석 시장이 지난 1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을 방문해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허 시장의 북경 방문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북경 중관촌 방문 시 관리위원회 및 기업대표들과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서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방문에서 허 시장은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마네초지국제예술센터 등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 및 해외지사 유치 협력 등 가능한 사업 지원을 담고 있다.

또 인재 및 기업 육성, 투자시장 등 양 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간 컨설팅을 비롯해 창업 관련 자료 상호 제공,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 협력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허석 순천시장(사진 오른쪽)은 최근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해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타이젠엔 비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타이젠엔 비서장과 북경 중관촌은행 구여홍 동사장을 순천시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위원으로, 마네초지국제예술센터 진시쑤 이사장과 중관촌 장동클럽 장쑤용 주석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와 관련 장동클럽 장쑤용 주석은 40여개 기업대표와 함께 순천 방문을 약속했고,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타이젠엔 비서장은 조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중관촌 창업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센터인 마네초지예술센터 진시쑤 이사장은 여성기업가들과 함께 순천을 방문하기로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중관촌은 연평균 6000여개의 기업이 창업되며 현재 2만여개의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이다”며 “중관촌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발전적인 ‘순천형 창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농협 본점 6층에

조합원 권익지원센터 개소

순천농협은 조례동 본점 6층에 농업인 조합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합원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석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김수현 순천시 기술센터소장 등 지역 기관장과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법률, 노무, 가정복지, 농업경영, 세무 분야에 관한 무료상담과 지원 등으로 법률분야는 각종 법률적 분쟁 및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며, 노무분야에서는 조합원 또는 가족, 마을기업의 노사문제 및 노동법관련 고충상담을 지원한다.

가정복지분야는 고령조합원의 일상안부 및 재가복지 이용편익제공과 조합원·다문화 가정의 건강, 행복, 심리 등에 대한 상담을 해주며, 농업경영분야는 농업 정책이나, 예산, 정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준다.

또 세무분야에서는 각종 재산의 매매나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종합세무 상담을 통해 정보나 지식부족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는 역할을 한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순천농협은 지난 11일 조합원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세열굴

“시민들 공감·신뢰 받는 경찰상 구현”

노재호 순천경찰서장

“주민들에게 믿을 주고 사랑받는 순천경찰이 되겠습니다.”

신임 노재호(56) 순천경찰서장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서장은 “조직 내·외에 존중 문화를 확산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신인 노 서장은 경찰대(1기)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이전 단장과 경찰병원 총무과장, 경기남부청 광주서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고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11(금) ~ 21(월)
• 전 형 일: 2019. 1. 24(목)

대학원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 형 일: 2019. 2. 8(금) 오후 2시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 형 일: 2019. 2. 8(금) 오후 2시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신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